

'블록으로 만드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익산 백제왕궁박물관, 7월 15일 체험 프로그램 진행

오늘부터 백제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 선착순 50가족 접수

익산 백제왕궁박물관에서 레고를 만난 백제역사유적지구 콜라보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익산 백제왕궁박물관은 '2023 세계유산축전: 백제역사유적지구' 기간을 맞아 (재)백제세계유산센터와 '블록으로 만드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체험을 다음 달 15일 진행한다.
우선 백제왕궁박물관 로비에서는 '레고로 만든 백제역사유적지구 모형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익산, 공주, 부여에 위치한 백제역사유적지를 시스템 브릭과 듀플로 브릭을 이용해 높이 약 50cm로 만든 레고작품 12점을 선보인다.
레고 전문 강사와 약 1시간 동안 함께 블록 체험을 하는 '블록 체험'이 진행된다. 박물관 일부에서는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여행하는 레고 코딩 기차' 및 별도의 '레고 테이블'을 비치하여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아이들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레고 전문 강사와 함께 하는 블록체험의 사전 예약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재)백제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된 링크를 통해 접수받는다. 2011년생부터 2017년생(6세~12세)까지 선착순 50가족(1가족당 최대 4명, 어른 1명 참여 필수)을 받고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계유산 백제왕궁(왕궁리유적)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체험을 (재)백제세계유산센터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월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2023 세계유산 축전: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체험은 블록을 활용하여 다양한 백제 문화유산을 직접 만들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0년부터 (재)백제세계유산센터가 익산, 공주, 부여 지역에서 진행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블록으로 만드는 백제역사유적지구' 포스터

뮤지컬 '미드나잇 액터뮤지션' 정읍 온다

정읍시예술회관에서 30일 진행... 다양한 퍼포먼스·연주·노래 등 만날 수 있어

정읍시는 30일 오후 7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뮤지컬 '미드나잇 액터뮤지션'을 선보인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 작품은 무대를 장악하는 실력과 액터뮤지션들의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기타, 더블베이스, 바이올린, 퍼커션 등의 연주와 노래, 연기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관객들의 귀를 휘감는 고혹적인 선율과 넘버, 춤추듯하게 짜인 대본에 밀도 높은 심리묘사도 이 작품의 매력 중 하나다.
관람료는 1만 5000원이며, 정읍시민이나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은 50% 할인받을 수 있다. 예매는 20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1인당 4매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문화적 감성을 해소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대, 한국 문단 신예작가 발굴 산실 공모전 개최

'가람 이병기 청년 시문학상' · '최명희 청년 소설문학상' 8월 31일까지 접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총상금 800만 원 규모의 문학상인 '가람 이병기청년시문학상'과 '최명희 청년소설문학상'(이하 문학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홍보기념사업회(대표 김병용)·최명희문학관(관장 최기우)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오는 8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공모 분야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부문 각각 시와 단편소설로 시는 시조 포함 세 편 이상, 소설은 한 편 이상 제출해야 한다. 당선자에게는 상금을 수여하며 당선 작품은 전북대신문 개교 기념 특집호(2023년 10월 11일 자 예정)에 발표된다. 작품은 전북대신문사 편집국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한편 전북대는 한국 문학사에 기념비적인 공로를 세운 '난초 시인' 가람 이병기와 '혼불'의 최명희를 추모하고, 문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전북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아 총 상금 규모가 6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문학상 공모에 관한 문의는 전북대 신문방송사(063-270-3536)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게임콘텐츠학과 12회 졸업전시회 개최

22일까지 스타센터 3층 아트갤러리서 4학년 재학생 제작 게임 13개 전시

전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12회 졸업전시회가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나흘 동안 스타센터 3층 아트갤러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전시회에서 게임콘텐츠학과 4학년 재학생들은 4년 동안 배운 게임 제작 방법을 통해 제작한 게임 13개가 전시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게임콘텐츠학과 재학생뿐만이 아닌 일반인 대상으로도 상시 개방하고 있다.
게임콘텐츠학과 강승목 학과장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루함과 내태함과 그리고 어려움과 싸우며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모든 학생의 수고가 이 작품 속에 들어 있다"며 "작품 제작에 참여한 학생 모두에게



감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공동기획 어린이 특별전 '또 다른 수탈'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이하 역사관)은 오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공동기획 어린이 특별전 '또 다른 수탈'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관장 박철규)과 공동기획한 전시다.
일제강점기 수탈 품목 중 하나였던 '동물'을 주제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미디어아트와 당시 생생한 현장을 담은 사진 자료를 전시한다.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된다. △1부 '프롤로그'에서는 일제강점기 수탈당한 불자 중 동물들

도 있었음을 소개한다.
△2부 '전쟁터로 간 여덟 동물 이야기'에서는 제국주의 전쟁 수행을 위해 희생된 주요 여덟 동물을 미디어아트를 통해 알아본다.
△3부 '우리나라의 동물들'에서는 수탈되는 동물들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살펴보고, △4부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는 전쟁으로 수탈된 우리나라 사람들과 동물들의 이야기를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5부 '에필로그'는 색을 잃어버린 동물들에게 알록달록 색을 칠해 색깔을 찾아주는 체험 공간으로 전시 내용을 되새길 수 있게 한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인아카데미 운영 권역별 단체 공모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역 예술가들의 인문적 소양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인 '전북 예술인학교 Art+'의 운영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 예술인학교 Art+'는 예술을 기반으로 예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주제를 선별해 진행되는 예술가 성장지원 아카데미로, 권역별 운영단체에서는 지역 예술가를 대상으로 5~10회 교육프로그램 및 워크숍(현장답사)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와 예술역량 향상을 위한 권역별 특성화된 예술

가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할 4개 내의 단체를 모집한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도내 민간단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운영단체에는 운영 횟수 및 방식에 따라 단체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공고 및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6월 30일까지 이메일(jart7445@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창작지원팀(063-230-7445)에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